

		보 도 자 료		 
		배 포 일	2021. 7. 23.(금) 총 3매 (본문 2, 참고 1)	
담당 부서	어촌양식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김성원, 서기관 강희정, 사무관 윤연미 • ☎ (044)200-5610, 5614, 5616	
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기후변화연구과	담당 자	• 과장 고우진, 연구관 한인성, 연구사 이준수 • ☎ (051)720-2210, 2230, 2231	
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식관리과	담당 자	• 과장 황형규, 연구관 김현철, 연구사 최진 • ☎ (051)720-2410, 2420, 2431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
충남·제주까지 고수온주의보 발령 해역 확대 **- 고수온 특보 단기간에 넓은 지역으로 확대, 대응준비 철저 당부 -**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, 7월 23일(금) 14시부터 서해 및 남해서부, 제주해역까지 고수온 주의보를 확대 발령*하였다.

* 특보 발령 현황 : (2021. 7. 12.) 관 심/전연안
 (2021. 7. 15.) 주의보/함평만, 득량만(내측), 가막만
 (2021. 7. 20.) 경 보/함평만, 주의보 확대/ 득량만 외측해역
 (2021. 7. 23.) 주의보 확대/서해, 남해서부, 제주해역

이번에 새롭게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의 수온은 7월 22일 기준으로 주의보 발령기준인 28℃에 도달하였다.

* (관심) 수온 28℃ 도달 예측 1주일 전 → (주의보) 수온 28℃ 도달 →
 (경보) 수온 28℃ 이상 3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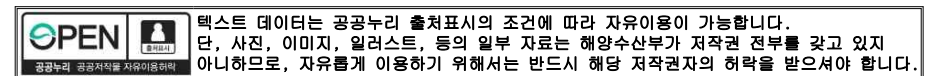
올해 고수온 경보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2018년*보다 2주 정도 빨리 발령되었으며, 급속히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.

고수온 특보 최초 발령 이후 단 9일 만에 관심단계에서 경보까지 상황 조정되고, 발령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.

* 2018년 : 관심(7. 17.) → 주의보(7. 24.) → 경보(8. 6.) / 피해액 605억 원

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수온을 모니터링하여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수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어업인들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출하를 독려하고 있다. 또한, 특보가 내려진 해역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배치하여 먹이 조절, 대응장비 가동, 면역증강제 투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어가 지도를 지속하고 있다.

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“고수온 특보해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, 어업인들은 수온정보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, 발령된 해역에서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

참고 1 **고수온특보 발령 해역**

